

“건강한 금산 만들기, 보건소가 앞장서겠습니다!”

글과 사진 박연숙(본지기자)

송기철 소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금산군보건소 방문을 앞두고 '보건소가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공간이었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자는 어려울 적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 사람 중 하나다. 동네에 치과가 없던 시골마을이어서 보건소 치과를 찾아 이를 치료했던 기억이 많다.

그러나 요즘은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그리 친근한 공간은 아닌 듯하다. 몇발짝 거리에 병원이 즐비하니 굳이 먼 보건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면, 거기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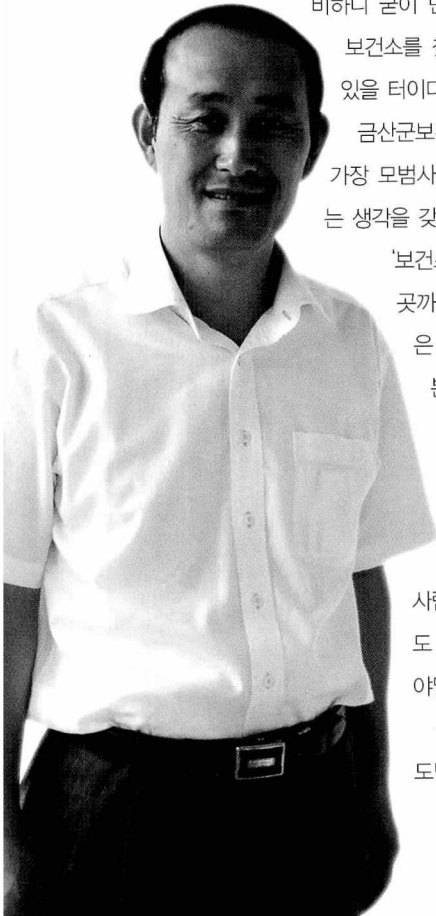
금산군보건소를 취재하면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가장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금산군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중심에 송기철 소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보건소' 대신 '건강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부터 세심한 곳까지 신경쓴 인상이 역력하다. 유려한 노출콘크리트의 건물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곳에는 보건소 뿐 아니라 평생학습의 요람인 다락원을 비롯해, 금산문화의 집, 추부문화의 집 등 유관시설이 한데 모여 있어 지역 주민의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기철 소장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렇게 시설 좋은 보건소 보셨어요? 건물이 좋아지니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도 받고 다양하게 짜여진 건강 여가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금산군보건소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몇해 전 참가했던 도민체전 때부터다. 각 보건소에서 하나씩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 송기철 소장은 각 보건지소를 통해 노인분들 30명을 모아 두 달간 맹훈련을 시작했다. 이른바 울동체조,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 서른분이 나와 울동체조를 선보이니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여기에 참가한 노인들은 물리치료실 갈 필요가 없다며 울동체조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고 한다. 이때 송기철 소장은 '이것이 바로 보건소가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아픈 사람 치료야 병원이 할 수도 있지만,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건강한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을 얻은 그는 2006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에서 또 한 번 아이디어를 발휘, 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금산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로 자리잡은 그 행사에 금산군에서는 유일하게 보건소가 참가해 건강체험관 25개를 운영, 시첫말로 '대박'을 쳤다. 사상의학에 따른 체질검사, 대장균 컨셉을 응용한 체험관, 인삼쿠키를 만들어 나눠주고 홍삼팩 마사지도 제안하는 등 아이템 하나하나가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일반 병원이 할 수 없는 상담이나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금산군보건소의 차별화 전략. 특히 가장 인기있는 사업은 한방보건사업이다. 한방진료는 물론 한방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부나 금연관리에도 한방을 접목시켰다.

주민 보건을 위해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송기철 소장은 그래서 보건소 내 아이디어뱅크로 통한다. 한 번 결정한 것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부친다.

“공무원이 품만 잡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변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젠 많은 분들이 보건소 사업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구요.”

직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가 있는 먼 읍내까지 새벽차 타고 찾아오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卍